

외래 곤충 퇴치에도 노력했다.

-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당시에는 환경 관련 연구책임자로 참여했고, 최근 장보고기지 인근 아델리펭귄 집단서식지인 인익스프레서블섬의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중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관리계획도 작성했다.
- 김지희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남극특별보호구역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 방안 강화를 위해 의정서의 협의당사국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관리계획 부속그룹(SGMP: Subsidiary Group on Management Plans)'을 이끌 예정이다.
- 신임 부의장의 임기는 2026년 제28차 CEP 회의부터 2년이며, 한 차례 (2년) 연임이 가능하다.
- 김지희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의 환경과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남극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는 사명감으로, 남극의 현재 모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붙임1. 김지희 남극환경보호위원회(CEP) 신임 부의장 약력



김지희 남극환경보호위원회(CEP) 신임 부의장. 2025년 CEP 연례회의 발언 모습(이탈리아 2025.6.)

- 성명: 김지희 (KIM, JI HEE)
- 생년월일: 1969년 (만 56세)
- 소속 및 직급: 극지연구소 생명과학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학력사항:
 - 2000.02.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박사(해조류 분류학)
 - 1994.02. 서울대학교 생물학 석사
 - 1992.02. 목포대학교 생물학 학사



□ 주요경력:

- 2007 ~ 현재 극지연구소 재직 중 (남극환경정책담당관 역할 수행)
- 2013 ~ 현재 남극환경보호위원회(CEP) 대표단 활동
- 2013 ~ 2015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사업 (연구책임자)
 - * 기지건설 위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담당, 환경보호위원회 업무 대응

□ CEP 관련 주요 업무 경력

- 남극세종과학기지 인근 남극특별보호구역(ASPAs) 171번 나레브스키 포인트(일명: 펭귄마을) 현장 조사 및 관리계획(안) 작성 참여
- (2013년~현재) 남극환경보호위원회(CEP) 한국 대표로 활동
- (2019년) 미국 남극맥머도 상주과학기지의 재개발을 위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CEE) 초안의 검토를 위한 남극환경보호위원회의 회기간 협의그룹(ICG)을 이끌어 당사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42차 ATCM 및 24차 CEP에 논의 문서 제출
-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인근 인익스프레서블섬의 아델리펭귄 군서지 등의 보호를 위한 남극특별보호구역(MPA) 지정을 위해 중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작성
 - 2021년 43차 ATCM에서 ASPA No. 178로 지정 승인됨
 - 2023년부터 ASPA 178 관리를 위한 3개국 협의체를 이끌고 있음
- 남극 킹조지섬 외래곤충 퇴치를 위한 제40차 ATCM (2017년) 작업 문서 제출 및 다년간 국제협력 주도
 - * 남극세종과학기지 내 외래 곤충 퇴치 성공을 계기로 외래종 퇴치 매뉴얼 작성, 제46차 ATCM 및 26차 CEP (2024년)에 관련 정보 문서와 함께 당사국들에게 매뉴얼 공유
- 현재 ‘남극과학기지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 및 생태계 오염 요인 모니터링’ 연구와 ‘남극특별보호구역 모니터링 및 남극과학기지 환경관리에 관한 연구’ (환경부) 연구책임자 활동 중 /끝/